

'2025 ACC 수요극장' 연말까지 매주 첫째·셋째주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월호

국내·외 명작, ACC서 영상으로 만나다

15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시작으로
국립창극단 작 '나무, 물고기, 달'
슈투트가르트 극장 '로미오와 줄리엣'
빈 국립오페라 작 '베르테르' 등 22편

지역에서는 해외나 수도권에서 상연하는 작품을 만날 기회가 흔치 않다. 아레나 디 베로나, 슈투트가르트 극장, 쿠렌치스 인 텔포이 등 해외 단체들이 제작·유통하는 공연은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광주 실연이 쉽지 않다.

해외-수도권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만나는 기획 시리즈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형)이 오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ACC 극장3에서 여는 '2025 ACC 수요극장'이다. (매일 1:30~2:00, 수요일 오후 7시)

올해는 10주년을 맞는 ACC 창·제작 공연 등을 포함해 총 22편 작품을 고화질로 준비했다.

공연은 오는 15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5번'으로 막을 올린다. '운명 교향곡'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진 베토벤 역작이며 웅장한 사운드와 주제 선율로 세계적 명작으로 손꼽힌다.

이어 2월 5일에는 국립창극단 작 '나무, 물고기, 달'이 관객들을 만난다. 상상의 공간인 수미산에 있는 소원나무를 찾아가는 여정을 실감 나게 그린 창극이다.

오페라와 연극 등 대중적인 선호도가 높은 작품들도 무대에 오른다.

국립오페라단 '브람스'는 2월 19일, 아레나 디 베로나 작 '카르멘'은 3월 5일 무대를 수놓는다. 각각 브람스와 조르주 비제의 곡을 배경 삼아 연기를 펼친다. 이외에도 국립무용단의 전통무용극 '호동' (3월 19일), 국립극장 '명색이 아프레젤' (4월 2일) 등이 준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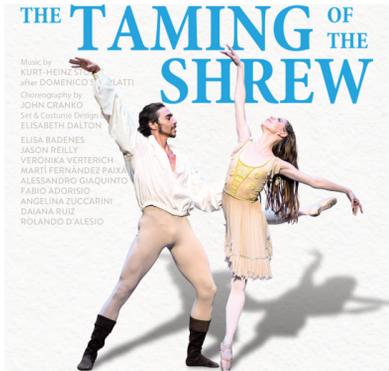
국내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극작품들도 레퍼토리에 있다. 20세기 최고의 코미디 발레로 손꼽히는 슈투트가르트 극장 '말괄량이 길들이기' (5월 7일)가 그것. 국제 발레 중 몇 안 되는 희극 발레이며 평범함을 벗어난 파드되와 익살맞은 발레 마임은 큰 웃음을 선사하기 충분하다.

국립극단이 제작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5월 21일)도 기대를 모으는 연극이다. ACC 대표 레퍼토리인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연출한 고선용 작.

또한 '탄신' (6월 4일)은 극작가 천승세의 대표 희곡으로 1964년 국립극장 현상공모 당선작을 극화한 것이다. 작은 섬마을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 수요극장'을 ACC 극장3에서 연말까지 선보인다. 오는 9월 17일 상영하는 빈 국립오페라단 작 '베르테르' 공연 장면. (ACC 제공)



발레 3부작 '말괄량이 길들이기' 컨셉샷.

치 일기' 이야기를 매개로 1960년대 서민들을 그린 리얼리즘 연극이다.

이 밖에도 클래식 작품으로 쿠렌치스 텔포이 '베토벤 교향곡 7번' (6월 18일), 그라페네 '미드섬머 갈라' (9월 3일), 국립심포니 '브람스 교향곡 4번' (10월 1일)이 준비돼 있다.

오페라·뮤지컬 작품은 국립오페라단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7월 2일)과 '한여름 밤의 꿈' (8월 6일) 등

이 스크린에 오른다. 네오가 제작한 '더 라스트 맨' (7월 16일)도 호평을 받았던 창작 뮤지컬이다.

빈 국립오페라 작 '베르테르' (9월 17일)도 흥미를 끄는 사블시스로 주목받는다. 시인 베르테르는 어린 자매를 돌보며 살아가는 사투데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 마을 무도회가 끝난 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나 사투데는 어머니 유언을 따라 알베라와 약혼한 사실을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ACC가 자체 준비한 무용극과 연극도 예술의 낭만을 선사한다. 몸 언어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마디와 매듭'은 강인한 여인들이 자연 속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을 극화했으며 11월 5일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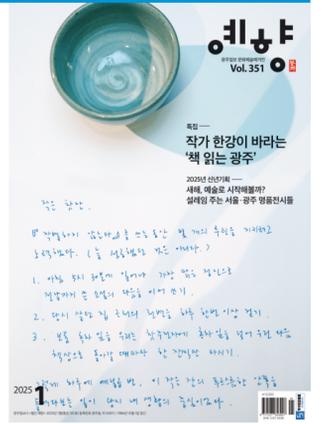
아울러 공간을 이동하며 펼쳐지는 다양한 서사를 하나로 엮은 연극 '접시꽃 길 85번지'는 11월 19일 볼 수 있다. 대미는 슈투트가르트 극장의 클래식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12월 3일)이 장식할 예정이다.

ACC 이강형 전당장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우수 공연의 감동을 광주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펼쳐 온 프로그램이다"며 "국립극단, 오페라단은 물론 빈 국립오페라단, 아레나 디 베로나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연 영상들이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고 했다.

전석 무료, ACC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연남



'작가 한강이 바라는 책 읽는 광주' '영원한 천국' 정유정 작가 초대석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시가 2025년 새해 '책 읽는 인문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구입하는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작가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신년호에서 준비한 특집은 '작가 한강이 바라는 책 읽는 광주'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어릴 때부터 1년에 최소한 문학작품을 학교에서 서너 권은 읽고 그걸 토론했고 다각도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문학작품 읽는 근육을 기를 수 있게, 문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책을 읽지 않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어떻게 책과 친해질 수 있을까? 가정과 학교의 독서문화 정착방안과 한 도시 미래를 이끄는 해외 동네책방 성공사례 등을 살펴본다.

1월에 만나볼 예정 초대석 주인공은 최근 장편 '영원한 천국'을 펴낸 소설가 정유정 작가다. 정 작가는 최근 견디고 맞서고 이겨내려는 인간의 마지막 욕망에 대한 이야기인 장편소설 '영원한 천국'을 발표했다. '육방 3부작' 중 두 번째 소설이다.

작가는 지난 2007년 등단 이후 인간 본성의 어둠과 그에 저항하는 자유의지를 중심에 둔 소설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독자들은 작가의 소설 성향에 따라 '무서운 언니' 또는 '다정한 그녀'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독자들에게 '이야기꾼'으로 불릴 바라는 작가의 문학과 글쓰기 인생에 대해 듣는다.

신년 기획 '새해, 예술로 시작해 볼까?'는 문화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작품 세계로 안내한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미술관들이 각자 다른 주제로 내건 블록버스터전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12년 만에 세 번째로 열리는 예술의 전당 '불멸의 고흐전'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ACC 포커스전-구분장 사물의 초상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신년 나들이로 가 볼 만한 화제의 전시현장을 만나본다.

지난해에 이어 연중기획물로 이어가는 '여행과 함께하는 남도 투어'는 로케이션 성지 전담을 소개한다. 전남이 로케이션 성지로 불리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더불어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남 곳곳은 TV 드라마나 CF,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촬영 명소가 됐다. 추운 겨울에도 낭만을 찾을 수 있는 순천 낙안읍성과 드라마촬영장,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로 안내한다.

'맛과 멋 함께, 남도유람' 여정은 일출여행으로 시작하는 '남만 무안'이다.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는 도리포와 영산강 자전 거길, 황토갯벌랜드, 밀리터리 테마파크까지 무안은 영산강과 갯벌, 바다가 어우러진 여행지이다. 뽕나지와 송어회 등 먹거리도 풍성하다. 해안 노을길과 뽕맛이 치유술길, 탄도들레길에서 '겉지름은 도시, 위키북 시티 무안'의 정수를 만끽해보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조선부터 근현대까지 서화가 발자취 '호남서화가 사전'



호남 서화가 400여 명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담은 '호남서화가 사전'이 발간돼 '화제'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최근 '호남서화가 사전'을 발간했다.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서화가 400여 명의 발자취를 한 권에 담은 것.

편저자로 의재미술관 이선옥 관장이 참여했다. 이 관장은 "이번 책은 호남 전통서화와 흐름을 개괄하고 그 특징을 담아냄으로써 호남 서화가들과 관련된 기록을 엮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구자 뿐 아니라 호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발간

남 전통서화의 맥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호남서화가 사전'은 지난 2022년 개최된 '호남서화연구 심포지엄'을 계기로 서화가와 작품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3년여의 연구를 통해 결과물로 이어졌다.

책은 기존 연구된 서화가를 비롯해 주요 전람회에서 활동한 작가들, 최근 작고한 서화가의 삶과 작품을 아우른다. 특히 지역 화단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훑어볼

수 있는 자료 등도 담고 있어 지역 서화가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위원은 '광주·전남 전통서화가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과제'라는 글을 통해 호남에서 활동한 화가 중 심층연구가 필요한 서화가들을 시기별로 소개했다.

한편 흥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사전 발간을 계기로 진흥원은 호남 전통서화 아카이브 구축 외에도 학술적 활용, 콘텐츠 확장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호남 예술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1월 강좌... 오늘 서명원 교수 첫 시간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강좌가 새해에도 진행된다. 1월 제122기 강좌(31일까지 화요일 제외)는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오후 2시부터 시민참여형으로 펼쳐진다.

먼저 월요일(6일, 20일) '몸-언어-철학' 시간에는 서명원 교수가 '체현주의:신체화된 마음'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8일, 22일)에는 신광용 책임연구원이 '토론기법: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목요일(9일, 23일) '맑스 세미나' 시간에는 위상복 교수가 '모택동 '실천론·모순론': 변증법적 유물론'을 강의한다.

금요일(10일, 24일)에는 신우진 이사장이 '하루키 웰트'를 진행한다. 신작 에세이 '오래되고 멋진 클래식레코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일요일 '인문학' 시간에는 진정한 이사 등이 미술전람회기행을 한다.

한편 명혜영인문교실(오후 7시 월요일, 목요일 제외)도 펼쳐진다. '슬로우리딩: 한강', '어프초치일본', '수오테마극장', '베르그송 철학', '미술속서모임', '인생, 에세이' 등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참가비는 4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